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신규 주택 착공 건수, 6월에는 줄어
- CNN Business: 미국인들, 충분히 빠르게 저축 회복하지 못해
- WSJ Real Time Economics: 미 소매 판매 ↑, 산업 생산은 ↓

[미국 금융]

- WSJ: 월가는 투자 은행 부진을 떨쳐내지 못해
- WSJ: 기술주, 밌 주식,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다시 대담해져
- CNBC: 연준 관계자, "AI가 불법 대출 관행 초래 가능성" 경고

[주택]

- WSJ: 주택 소유자 팔기 싫어해 건설 업계 호황
- Bloomberg: 개발업자들, "2025년에 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 경고

[오일]

- Bloomberg: 유가 80불까지 일시 상승... 러시아 공급 감소 탓

[미국 생활]

- Bloomberg: 은퇴 후 백인의 인지력이 가장 떨어진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소매업체의 현실적인 문제: 계속되는 가격 인하
- WSJ: 고위 경영진, 주 5일 사무실 근무에 반대하다
- Bloomberg: 하이브리드 미팅 준비 가이드: 참여 유도가 핵심
- Bloomberg: LG, 각 사업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공개
- CNN Business: Amazon "무더위 막는 제품 판매 크게 늘었다"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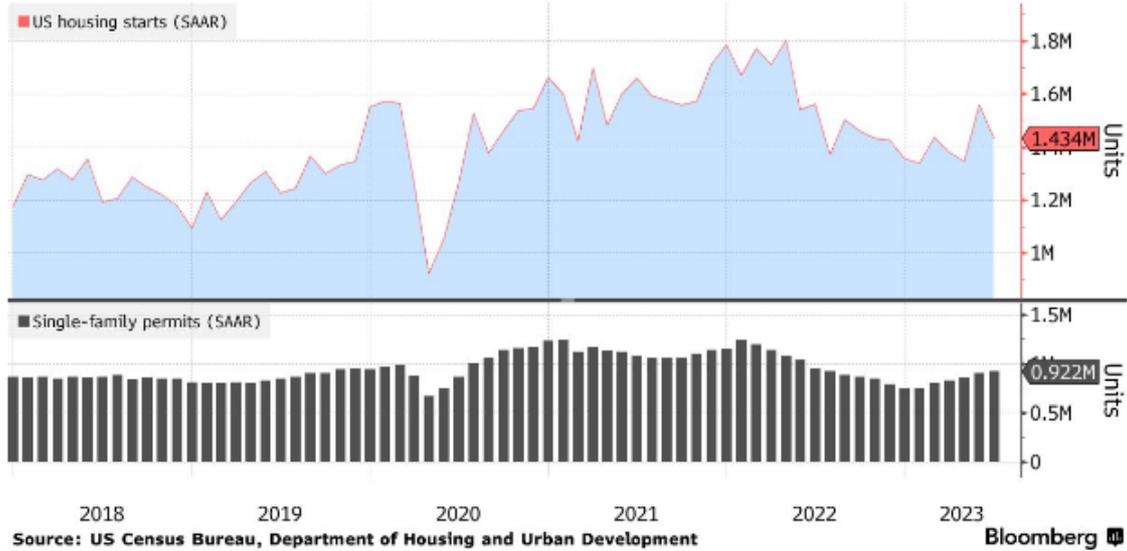
- JP Morgan: 워싱턴 관점: 경기 침체 리스크 전망과 지정학적 관리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Housing Starts Fell in June After Surging in Prior Month 미 신규 주택 착공 건수, 6월에는 줄어

- 미 신규 주택 건수가 5월에는 15.7% 크게 늘었으나 6월에는 8% 줄어든 1백43만채로 나타났다.
- 향후 건설의 지표가 되는 건축 신청 건수는 연간 1백44만채로 3.7% 감소했다. 반면에 단독 주택 건축 허가는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감소는 전월의 큰 증가에 이어진 것인데 주택 건설 착공이 약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보다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즉, 주택 착공은 팬데믹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Housing Starts Decline After May Surge Groundbreakings slow; rise in one-family home permits points to more construction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Americans aren't rebuilding their savings fast enough 미국인들, 충분히 빠르게 저축 회복하지 못해

- JP 모건사의 관계자는 "가족들이 저축한 돈을 소비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다시 모으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 많은 가정이 저축이 없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 분석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2019년에 비해 현재 은행 계좌에 10~15%도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 여력이 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 임금이 최근에야 2년만에 인플레를 앞섰지만 '대 퇴직 기간'에 임금 인상 혜택이 물가 인상으로 본질적으로 상쇄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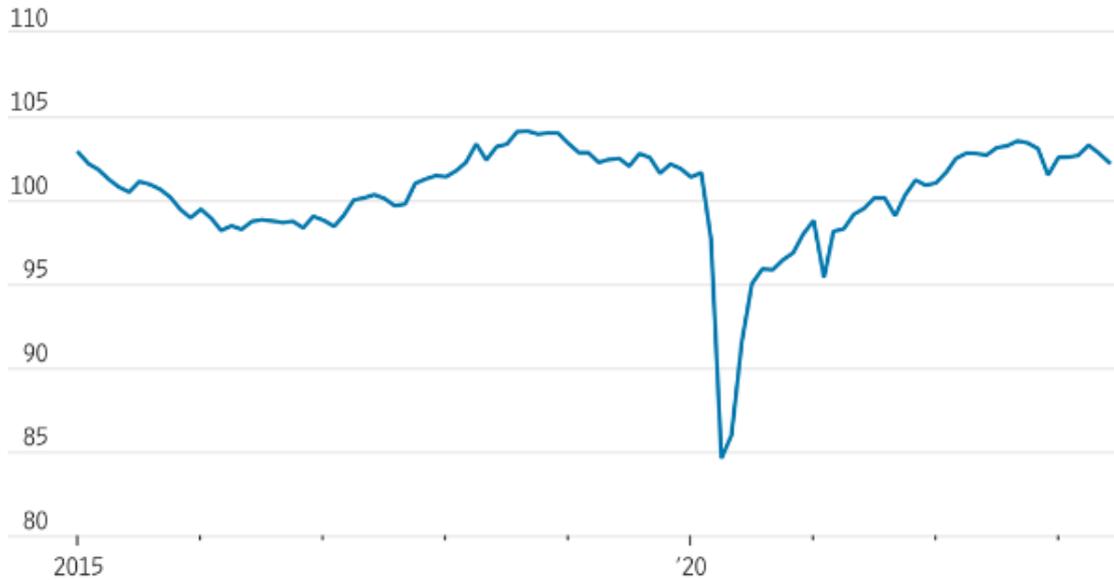
CNN Business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미 소매 판매 ↑, 산업 생산은 ↓

[미 소매 판매 ↑, 산업 생산은 ↓]

- 미국 소매 판매가 6월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생산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6월에 전월에 비해 0.5% 하락한 것이다.
- 전문가들은 산업 부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고용을 둔화시키고 소비자 지출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정도로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U.S. industrial production index



Note: Seasonally adjusted, 2017=100

Source: Federal Reserve via the St. Louis F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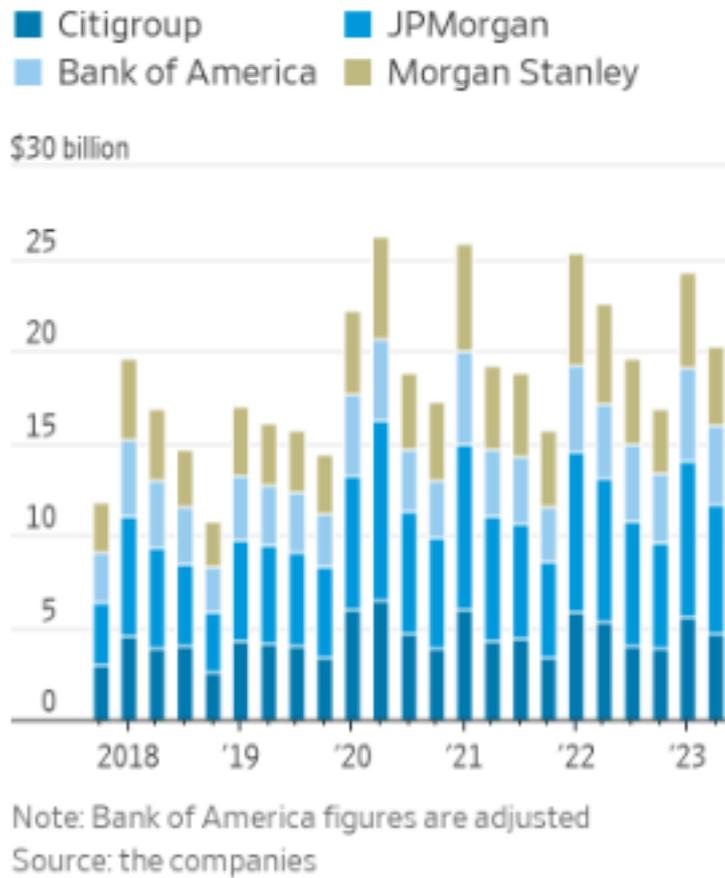
[미국 금융]

WSJ: Wall Street Can't Shake Off Investment-Banking Slump

월가는 투자 은행 부진을 떨쳐내지 못해

-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의 상황은 복잡한 상태다. 오늘 수요일 실적 발표에서 골드만삭스는 수익이 58% 줄었으며, 모건 스탠리가 트레이딩 매출이 줄었고 지난주에 JP모건과 씨티 그룹은 트레이딩과 투자 은행 부분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 경영진의 기업 공개와 거래 추진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 또한 금융 시장의 침체 때문에 트레이딩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거래 붐도 한풀 꺾였다.
- 현재 은행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트레이딩 수익에서 더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증가세는 진정되고 있다.

Trading revenue at select U.S. ban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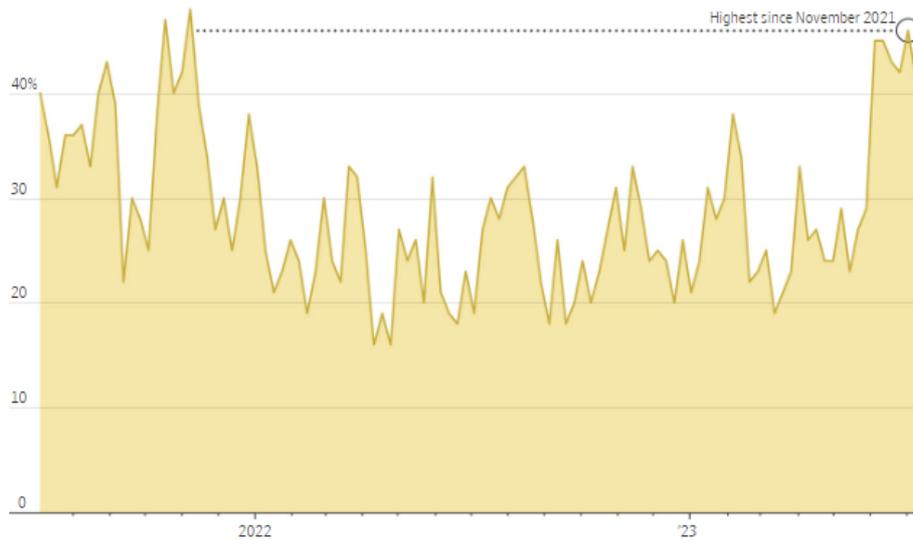
WSJ 기사

WSJ: Tech Stocks, Meme Stocks, Crypto: Investors Are Feeling Bold Again

기술주, 밈 주식,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다시 대담해져

- 현재 이들 투자 시장은 깊은 침체에 빠지기 직전인 2021년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 즉, 기술주가 미친 듯이 올라 밈 주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크립토버스 (Cripiverse)는 다시 일어나고 있고 옵션 시장에서도 강세장이 열기를 띠고 있다.
- 한마디로 주식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긴 약세장에 진입하기 직전인 2021년 말부터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리스크 온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 밈 주식 바람도 불고있다.
- 전문가들은 “자신이 뒤떨어 질까하는 FOMO 심리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시장 바닥이 드러나는 마지막에 몰려든다”고 경고했다.

Bullishness among individual investors



Source: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WSJ 기사

CNBC: Fed banking regulator warns A.I. could lead to illegal lending practices

연준관계자, "AI가 불법 대출 관행 초래 가능성" 경고

- 연준의 감독 부분 부의장인 Michael S. Barr는 "AI는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이 가능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그는 AI 기술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공정한 대출 법을 위반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CNBC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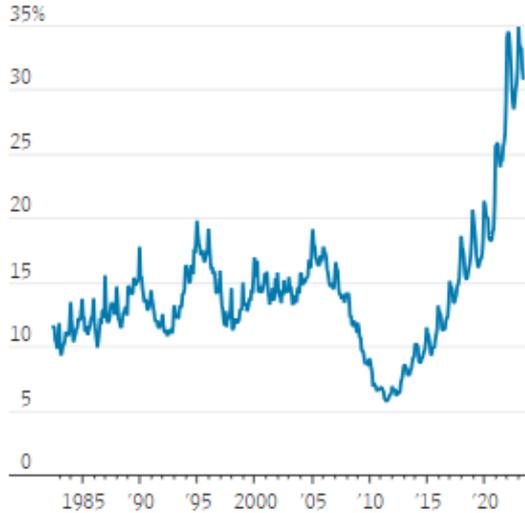
[주택]

WSJ: Homeowners Don't Want to Sell, So Home Builders Are Booming

주택 소유자 팔기 싫어해 건설 업계 호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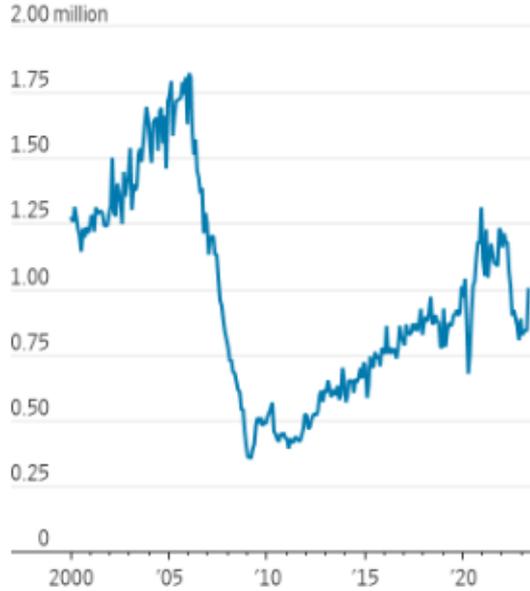
- 기존 주택 보다 신규 주택 판매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 주택 소유자들이 현재 자신에 해당되는 낮은 모기지 금리를 포기할 여유가 없어 주택 판매를 꺼리기 때문이다.
- 5월말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기존주택은 1백8만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 희망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 주택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New single-family homes as a share of all single-family homes for sale



Sources: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existing homes), Commerce Dept. (new homes)

Single-family housing starts



Source: Census Bureau via St. Louis Fed

WSJ 기사

Bloomberg: Developers Forecast Major Affordable Housing Drought in 2025

개발업자들, “2025년에 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 경고

- 높은 물가와 이자율 상승때문에 자금 조달에 공백이 생길 수있고 지연됨에 따라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 급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저가 주택 개발업체들은 2025년이나 2026년에 가면 2021년 같은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에는 팬데믹에 따른 가구 선호도의 변화가 공급 제약과 맞물려 급격한 가격 인상 현상을 보였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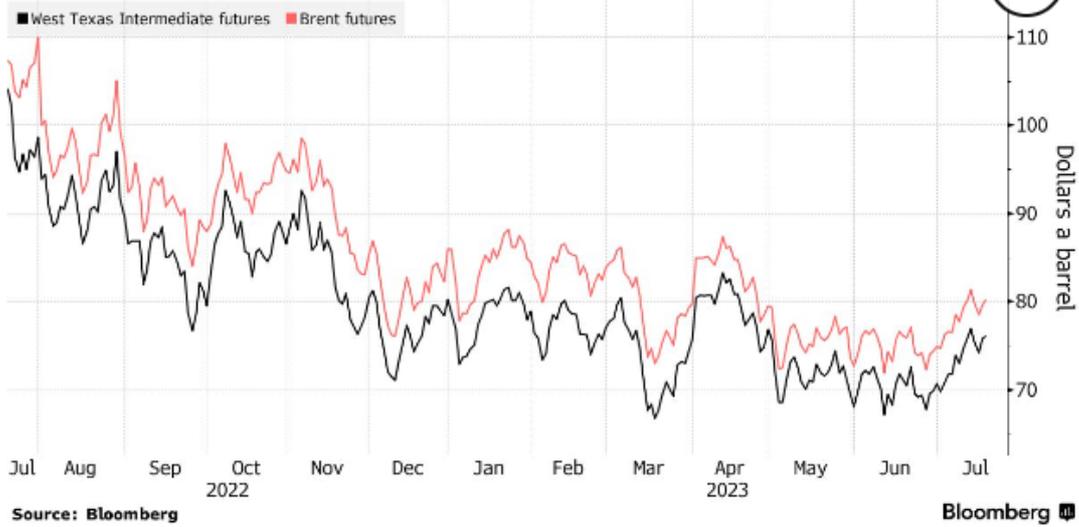
[오일]

Bloomberg: Oil Rises to \$80 as Russian Supply Drop Offsets Economy Risks

유가 80불까지 일시 상승... 러시아 공급 감소 탓

- 유가가 런던 기준 배럴당 80불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불안한 경제 상황과 글로벌 시장의 긴축 조짐 때문이다.
- 브렌트유 선물은 수요일 0.7% 상승했다. 7월 16일까지 4주 동안 러시아 원하 출하량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 이는 러시아가 OPEC+ 연합과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Oil Extends Gains as Russia Cuts Exports Traders are weighing slower US inflation against China concerns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Bloomberg: White Men Experience Biggest Cognitive Declines After Retirement

은퇴 후 백인의 인지력이 가장 떨어진다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인지력 저하 수준이 백인 미국인의 경우 흑인에 비해 거의 3배, 그리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2배 더 심각했다.
- American Geriatrics Society의 발표에 따르면 백인 성인은 은퇴 직후 인지 기능이 크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흑인 은퇴자의 경우 인지 기능 저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가지는 일부 백인 남성의 경우 육체적으로 은퇴하기 전에 ‘정신적 은퇴’ 또는 직장에서의 이탈을 겪는다는 것이다.

Cognitive Change

Trajectories of cognitive ability after retirement

Variable	Cognitive function score decline after retirement
All	-0.15
White	-0.19
Black	-0.07
Men	-0.2
Women	-0.11
White men	-0.22
White women	-0.14
Black men	-0.13
Black women	-0.04

Source: Andel R, Veal BM, Howard VJ, MacDonald LA, Judd SE, Crowe M. Retirement and cognitive aging in a racially diverse sample of older Americans. *J Am Geriatr Soc.* 2023

Note: Cognitive function (T-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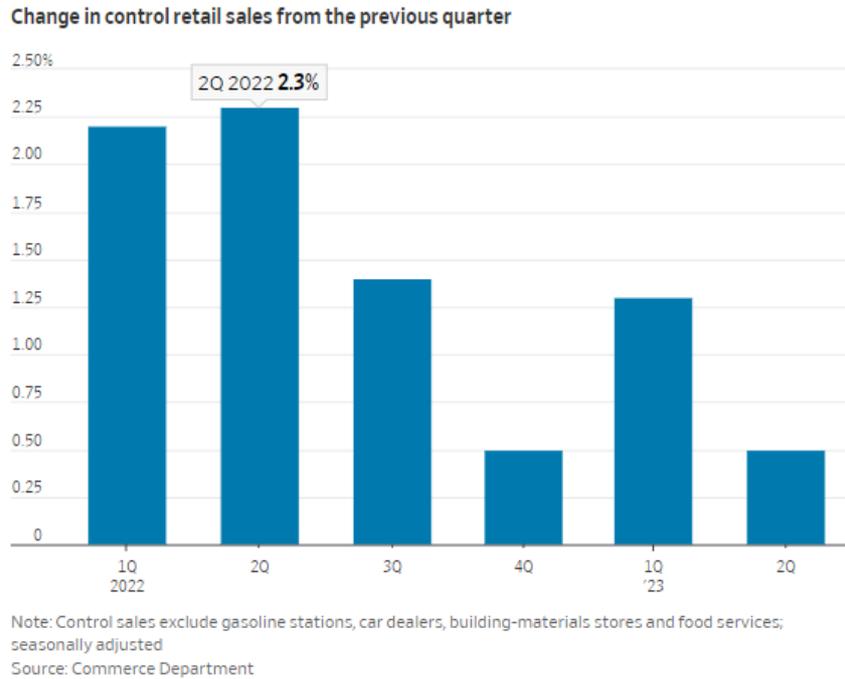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Retailers' Problems Get Real

소매업체의 현실적인 문제: 계속되는 가격 인하

- 화요일 미 상무부는 6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한 0.5%와 5월의 0.5% 증가율보다 낮은 수치이다.
- 하지만 5월 증가율은 이전에 보고된 0.3%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한 주유소, 자동차 딜러, 건축 자재 및 음식 서비스를 제외한 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5월까지 여러 소매업종의 2분기 가격 상승률이 1분기보다 더 낮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전체 상품 가격은 0.1% 상승에 그쳤다.
- 또한 식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상품 가격은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카테고리에서 가격 인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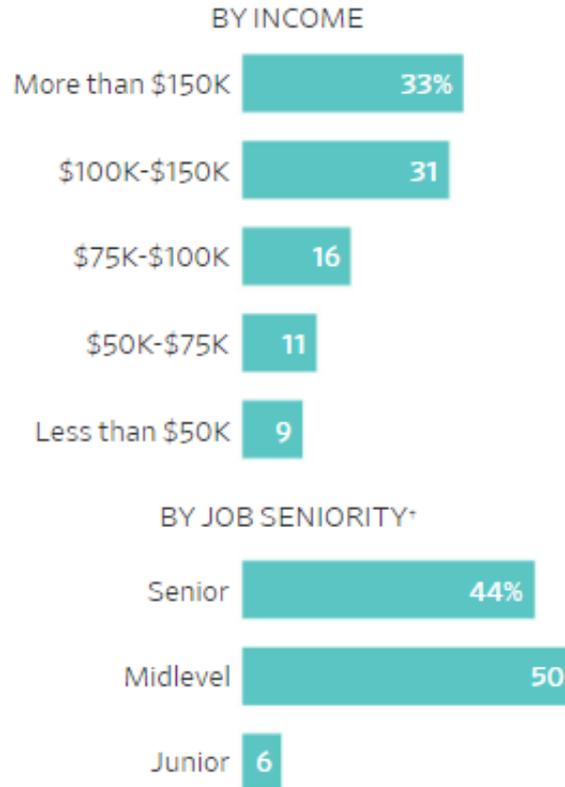


WSJ 기사

WSJ: The Biggest Holdouts on the Five-Day Office Week: Bosses 고위 경영진, 주 5일 사무실 근무에 반대하다

- 예상 외로 주 5일 사무실 근무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근로자는 고위 경영진이다.
- McKinsey에 따르면 많은 고위 경영진들이 재택 근무를 선호한다. 이러한 경영진의 숫자는 비교적 적을 수 있지만,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다.
- 6개국 1만 3천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위급 직원의 44%가 재택 근무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유연성이 인재를 유지하는 데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증거이다.
-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택 근무를 강력히 선호하는 직원 중 연봉이 15만불 이상인 직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 이들은 주 5일 사무실 근무를 해야 한다면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으며, 보수의 20% 이상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Employees who strongly prefer to work from home vs. the office*



WSJ 기사

Bloomberg: How to Hold Hybrid Meetings Where Everyone Stays Engaged

하이브리드 미팅 준비 가이드: 참여 유도가 핵심

- 완전 원격과 하이브리드 근무를 고민하는 경우, 전문가들은 원격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이는 사무실에서 화상 통화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상 회의가 본질적으로 더 민주적이기 때문이다.
- 가상 회의 참석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진행자가 있는 것이 좋다. 그는 의견 요청, 기술적 오류 수정, 채팅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또한 참가자들이 서로를 정확히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회의 카메라와 스피커, 마이크 등에도 투자해야 한다.
- 참가자들의 집중 여부 확인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모두 어렵다.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은 카메라를 키고 가상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이는 개인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 기술적 문제(예: 집 안의 시끄러운 소리)는 가상 회의의 일부이다. 집안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모두 취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outh Korea's LG Unveils AI Software for Use Across Its Units**LG, 각 사업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공개**

- LG가 AI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이고, 전자부터 화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 LG 기반 모델인 Exaone 2.0은 기존 버전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새 버전은 약 4천 5백만 건의 논문과 특허, 3억 5천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했다.
- “이중 언어 및 다중 모드 모델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 기업은 우리가 유일하다”라고 LG의 AI 연구 책임자 배경훈이 말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Amazon is inundated with shoppers desperately trying to cool off**Amazon “무더위 막는 제품 판매 크게 늘었다”**

- 소비자들이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제빙기, 수영장 튜브 등을 구매하고 있다.
- 아마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Jungle Scout에 따르면 7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아마존 에어컨 판매량이 248% 증가했다. 선풍기는 60% 증가했다.
- 또한 아마존에서 ‘싱글 룸 에어컨’과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검색이 세 자릿수로 급증했다. 자동차 앞유리용 햇빛 가리개는 아마존 자동차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선정 됐다.
- 이는 기후 변화와 기상이변이 소비자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달 캐나다 산불로 인해 미국 동부 대기 질이 나빠지면서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산불 연기가 가장 심했던 북동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119% 급증했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JP Morgan: Washington Policy Perspectives: More nuanced management of geopolitics and shifting narrative on recession risks****워싱턴 관점: 경기 침체 리스크 전망과 지정학적 관리**

- 미 경기 침체 가능성은 줄고 7월에 0.25% 추가 금리 예상되지만 9월에는 일시 중단하고 핵심 CPI 인플레이션은 3% 가까이에서 고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발적인 갈등' 리스크를 줄이고 소통 라인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단기적인 하방 리스크는 관리가 가능해졌고,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유지하려는 입장은 줄었다. 그러나 현재 벨류에이션을 고려할때 리스크 노출을 크게 늘리려는 경향은 없어 보인다.

[핵심 요약]

- 1. 현재 상황에서는 소프트 랜딩이나 최악의 경우 완만한 경기 침체가 기본 시나리오. 그러나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착륙 가능성도 있다.
- 2. 미·중 관계에 대한 바이든의 입장은 '탈 동조화'가 아닌 '다변화 (diversification)'와 '탈 리스킹(de-risking)'으로 바뀌고 있다.
- 3. 미국의 산업정책은 국내 비축과 국내 생산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책적 우선순위로 미국내 투자를 늘리고 핵심 투입 관련해 어떤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 4. 탈달러화는 현재 주요한 우려가 아니다.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가격이 책정된 에너지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인식은 실제로는 적다.
- 5. 연방재무부는 유동성 리스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사주 매입 하는 것이 현금 관리 및 유동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6. 지정학적인 중추 국가인 인도 및 터키와의 관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 7. 다자개발은행(MDB)이 양허 조건으로 인프라 금융과 기후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institution)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 8. Global South와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식된다.

JP Morgan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엘런 美재무 "노동시장 진정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핵심역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의 여러 요인 가운데 노동시장의 진정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옐런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채용 수요 강도가 진정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과열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식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T(정보기술)업계 등 일부 타격이 큰 부문을 제외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있다"며 "단지 채용 강도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